

■ 줌인 동남아시아 ■
Zoom-In Southeast Asia



다양한 미얀마의 칠기

The Varieties of
Myanmar Lacquerwares

김인아*

Ina Kim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칠기(lacquerware) 공예는 미얀마에서는 그 예술적 가치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고, 응용분야도 매우 넓다. 지금은 플라스틱 등 새로운 소재가 개발됨에 따라 점차 칠기의 사용이 줄어들고 그 공예분야가 희귀한 직종으로 변모해가고 있지만, 미얀마에서는 그 용도나 종류가 다양하며 수요도 높아 칠기공예학교가 대도시에도 하나씩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예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미얀마에서는 칠기는 단순한 생활 공예품이 아니다. 불교나 토착신앙인 정령숭배의 의례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례용품으로 자리 잡았고,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에도 사원의 불상이나 가구 및 악기 등 칠기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쉽사리 사라질 수 없는 절대적인 필수용품으로 문화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칠기는 습기와 열에 강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강사, khin-myanmar@hanmail.net

측면에서 역사적 증거물을 찾는 이들에게는 좋은 사료가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미얀마와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자칫 그 존재 가치를 무시하기 쉬운 공예품에 대한 예술사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미얀마의 칠기는 11세기에 건축된 버강 지역의 사원건립 비문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아마도 표면에 장식이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칠기의 기법은 중국의 영향으로 여겨지긴 하나, 미얀마는 중국에서 직접 그 제작기술을 습득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태국이나 라오스 등 동남아의 주변지역에서 받아들인 것 같다.

더욱이 이러한 칠기 제작 기법이 미얀마에 들어온 시기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시대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색의 칠(漆)을 뜻하는 미얀마어 ‘윙(yun)’의 어원을 추적함으로써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미얀마의 어와(Ava)왕조시대에는 지금의 산(Shan)주와 북부 태국지역에 살고 있는 타이족을 ‘파이윙 (Tai Yon)’이라고 불렀다. 미얀마 연대기(yazawin)의 기술에 의하면, 어와왕조의 바인나웅(Bayinnaung)왕이 1558년 지금의 태국 북부 지역인 치앙마이(Chiangmai)에 왕도를 둔 란나(Lan Na) 왕국과 란상(Lan Sang)의 일부지역을 차례로 정복하고 그곳에서 많은 칠기 공예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후 미얀마의 칠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되었던 것 같다.

미얀마의 칠은 중국 등과 비슷하나 칠을 생산하는 나무는 옷나무가 아닌 미얀마어로 ‘뿔시’(thitsi, 학명 *Melanorrhoea usitata*)라 불리는 것이며, 칠기의 재료는 고급 제품일수록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칠기의 가치는 칠을 이용한 겉표면의 가공기술과 기법에 달려 있다. 대체로 미얀마에서는 칠기의 형태에 따라 전통 기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면새김을 통하여 실제로 다색을 나타내는 ‘윙’(yun), 표면에 금박을 입힌 ‘쉐저와’(shwezawa),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원추형으로 표면에 부조로 장식하거나 유리조각을 붙여 넣는 종교의례용인 ‘파요’(thayo)와 ‘흐망지쉐차’(hmanzishecha) 등이 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천연안료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새로운 제작 기술이

도입되었는데, 바로 일본에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미얀마 현실에 맞게끔 변용하여 적용된 ‘저빵윤’(Japan yun)이 그것이다.

‘윤’(yun)은 칠기의 표면을 새김처럼하는 기법으로 중국에서는 ‘전칠’(填漆)이라고도 한다. 칠기 표면에 미리 밑그림을 그려 넣은 후, 세공침을 이용하여 그 밑그림에 따라 선을 새긴 다음, 원하는 안료를 새긴 선에 넣는 식으로 제작하는 미얀마 전통 칠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의 제작 과정은 우선 대나무를 얇게 저민 열편(裂片)을 사용해 기본 틀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보통 열편은 둥글게 감아 만드는 기법을 사용하거나 지역에 따라 직물을 짜듯 엮어내는 기법을 병행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나무 열편을 이용해 만든 칠기는 두께가 얇아 크기가 작은 기물을 만드는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무게도 가벼워 사용이 편리하다. 특별히 아래 <그림 1>과 같이 대나무와 말총을 엮어 낸 소지(素地)는 무게가 더욱 가볍고 신축성도 좋아 보통 최고급 칠기 제작에 사용된다.



<그림 1>
말총을 엮어 만든 소지

완성된 소지에는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땃시’와 골회(骨灰), 길거리를 태운 재 등을 섞어 만든 ‘따요’(thayo)를 발라 건조실에 말리고, 건조가 끝난 소지는 다시 꺼내어 땃시를 덧칠하게 된다. 덧칠 과정은 여러 회 반복되는데 칠이 먹여지는 횟수가 많을수록 칠기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덧칠이 완성된 칠기 표면에 문양을 그려

넣고 세공침을 이용해 표면에 음각을 새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음각된 부분에 안료를 채워 넣고 말린 후에 물과 걸거를 이용해 표면을 문질러 문양 밖으로 빠져나온 잔여 색을 제거한 후 건조시켜 아교를 발라 마무리한다.

과거 미얀마인의 생활도구 대부분은 전통 칠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쟁반, 도시락, 기름 저장통, 르팻(차잎)을 담는 그릇 등 그 용도는 실로 다양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생활 도구가 <그림 2>와 같은 빈랑(檳榔)열매상자로 미얀마어로는 ‘꿉잇’(kunit)이라 하는 상자이다. 미얀마에서 ‘꿉’(빈랑열매)을 씹는 관습은 매우 보편적이다. 꿉은 특별한 기념일이나 행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미얀마인들의 기호품이었고, 식민지 시대 이전에는 손님을 접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었다.



<그림 2>
일반적인 형태의 꿉잇

버잉나웅(Bayinnaung, 재위기간 1551-1581년) 왕의 현 태국의 아유타야(Ayuttaya) 정벌로 수많은 칠기 공예가들이 미얀마로 유입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침금(沈金) 기법이 함께 도입되었다. 미얀마어로 쉘저와(shwezawa)라고 부르는 이러한 침금기법은 승원의 출입구난 창문 창튼, 경전 보관함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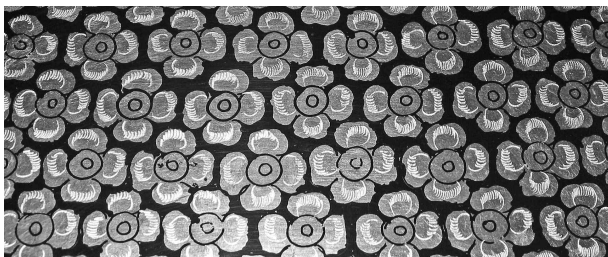
쉘저와기법은 바닥칠을 한 칠면에 문양을 그리고 세공침으로 음각

을 새긴 후 가장자리를 따라 황색 안료를 만든다. 그런 다음 음각된 문양에 생칠(生漆)을 바르고, <그림 3>과 같이 칠이 마르기 전에 금박이나 금분을 칠면 전체에 부착시켜 24시간동안 말린다.



<그림 3>
금박을 칠면에 붙이는 모습

건조된 칠기는 물에 담가 문양 밖으로 빠져나온 금박을 깨끗이 씻어내어 <그림 4>에서 보듯이 칠의 검정색 바탕면과 대조적으로 번쩍이는 금빛을 생생하게 표현해낸다.



<그림 4>
검정색 바탕면과 대조적인 금빛 문양

영국 식민지 지배 이전에는 쉼저와 기법은 값비싼 금을 사용해야 하는 점 때문에 주로 왕실이나 종교적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금박의 가격이 높은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 공예품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따요(tahyo)는 종교적 의례에 사용되거나 왕실의 상징물에 많이 사용되어 제작기법이 다른 칠기와는 아주 다르고, 그 형태도 매우 독창적

인 것이 많아 타 지역과 구별되는 칠기의 종류이다. 그 외는 생활도구로도 사용되는 칠기이지만,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법을 띤 칠기가 제작되고 있다.

불교사에서 봉헌의식에 주로 사용되는 따요는 그 독특한 형태와 부조의 장식으로 인해 매우 까다롭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미얀마 예술의 극치를 느낄 수 있다. ‘따요’는 ‘동물의 뼈’라는 의미로 표면에 동물 새김을 하기 위하여 뿔짚이나 심지어 소뿔을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요는 골회와 소뿔을 말린 분을 생칠과 함께 섞어 새끼처럼 말거나 꼬아서 하루 동안 건조시킨 뒤, 칠면에 다양한 패턴으로 붙여 넣는다. 일상 생활도구의 칠기와는 사뭇 다른 따요는 불교가 미얀마에 전파되면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따요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여 원추형이라는 기본적인 골격구조를 제외하면 공예자의 창의력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매우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칠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원의 가구나 장식품에도 따요 양식의 칠이 더해져 불교사원의 단순한 목조 인테리어는 매우 화려하게 변하였다.

<그림 5>
호망지췌차 기법이
적용된 따요 칠기의
표면



단순한 부조 형식을 벗어나 부조에 유리조각을 사용한 것도 보편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위의 <그림 5>와 같이 특별히 유리조각을 붙여 넣는 기법을 ‘호망지췌차’(hmanzishecha, 색채 유리 조각)라 한다. 유리조각은 문양의 구도에 따라 생칠을 발라 붙인다. 호망지췌차는 주로 일반 불교도가 승려나 파고다에 공양을 올리는데 사용하는 종교 의례용 칠기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대표적인 기물이 바로 아래 <그림 6>에서 보이는 ‘승옥’(hsunouk)이다.



<그림 6>
전형적인 형태의 송옥

미얀마의 전통적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칠기는 내구성이 요구되는 기물의 제작에 적합하였고 견고성도 매우 뛰어나 칠이 잘 벗겨지지 않고 앉으면서 방수성, 방부성도 탁월하다는 점 때문에 이를 기초로 칠기 제작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기법의 제작은 손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공정과정도 매우 길어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다. 더욱이 천연 안료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소재들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제작기법의 도입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근대적 변화에 맞게끔 변용된 것이 바로 ‘저빵윤’(japan yun)이다. 저빵윤의 소지는 일반적인 윤의 제작기법으로 만들고, 일단 문양을 새기기 전에 바닥칠을 해둔 표면에 아래 <그림 7>과 같이 은분을 칠하거나, 은색 페인트와 칠을 섞어서 다섯 번에서 열 번 가량 반복해서 덧칠해준다.



<그림 7>
칠기 표면에 은분을 칠하는 모습

그런 후에 문양을 새기고 건조시킨 후, 표면을 숯이나 사포로 가볍게 문지르면 갈색과 은색이 뒤섞이면서 저뽕옹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대리석 문양이 형성된다. 이러한 대리석 문양은 기존의 전통 칠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 기법이 도입되었던 초기에는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그림 8>
독특한 대리석 문양의 저뽕옹

이러한 저빵용의 기하학적 문양은 오늘날 미얀마 현지인들에게는 그리 선호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좋아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미얀마 기념품으로 주로 생산된다. 그러나 대량생산되다 보니 칠기 표면이 거칠고 안쪽 마무리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재료의 습득도 용이하고 공정과정도 짧다보니 보편적으로 즐겨 사용된다.